

# 목포-신안 화장장 공동이용·통합 관광 마케팅 추진

### 상생과제 실천 협의체 첫 회의 체감 정책 발굴·이행방안 논의

목포시가 최근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발굴과 역량 결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실무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양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양 시·군 상생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시·군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이 통합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우수상생과제 26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상생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공동 협의기구인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상정된 안은 ▲화장장 이용료 동등 적용 ▲목포시 화장장 화장료 1기 증설 ▲신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난 27일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목포시 제공>

안-목포 통합 관광 마케팅 ▲신안군-목포시 쇼핑물 공동 이용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구입 ▲도농 상생교류 운동 추진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 등이다. 신안군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동등

적용은 양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조례 개정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2025년도에 화장료 1기를 증설해 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박물관, 공원 등 유료 관광지 이

용 시 입장료 할인 혜택을 상호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등 공동 관광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우선 구입과 관련 신안군내 친환경농산물 납품 가능 농가와 물량 조사 후 오는 4월 중 관련 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 쇼핑물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는 목포업체가 신안1004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간분야 자율적 교류 분위기를 확대하고 양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공무원노동 조합담, 각종 체육대회 공동 추진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이 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민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통합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고액·상습 출국금지 행정제재 자동차세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처분을 잠시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생계형 체납자는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해남사랑상품권 4월 한달간 10% 할인 1인 최대 70만원 한도

해남군이 4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한도는 1인 70만원이다. 관내 35개 판매대행기관과 지역상품권 앱(chak)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할인판매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또 QR상품권 결제액 5% 캐시백 지급 이벤트도 계속된다.

4월 한달 동안 QR상품권 가맹점에서 QR결제 한 고객에게 2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게 된다. 캐시백은 총 결제액을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에도 선다.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4-5월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호응에 힘입어 10%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 지명 들어간 자생식물 14종 영상전시

### 멸종위기 신안새우난초 등 신안자생식물뮤지엄 3개월간

신안 섬지역 등에는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이 멸종위기식물 2급인 신안새우난초 등 총 14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식물종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흑산도비비추는 1989년 발표된 한국특산종이며 신안의 흑산도, 흥도, 장도, 가거도에 자생하는 비비추의 일종으로 잎은 반들반들해 광택이 나며 예쁜 보라색 꽃이 핀다.

신안군은 흑산도비비추처럼 식물 이름 속 지명과 관련 있는 식물종을 홍보하기 위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자생식물은 한 장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후의 변화는 물론 질병에 저항하며 살아남는 그들의 귀중한 유전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안은 자생식물 1878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있다.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자세히 알려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1년 개관한 뮤지엄은 신안 자생식물을 전시·보전 관리하는 공간으로, 20개 주제별로 자생식물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신안새우난초 흑산도비비추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은 가거누운꾼이끼, 가거꼬리고사리, 가거에기닥나무, 가거개별꽃, 가거양지꽃, 흑산가시나무, 흥도까치수염, 흥도서덜취, 흥도고들빼기, 가거줄사초, 흑산도비비추, 흥도원추리, 신안새우난초, 다도새우난초가 있다.

신안군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신안새우난초는 특히 주목받는다.

한편 신안군과 2021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국립생태원은 신안새우난초 종자 발아 및 증식에 최초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체서식지의 조성을 통한 서식지 내·외의 다양한 복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를 주제로 '신안 멸종위기종' 기획전시를 4월 27일부터 3개월간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개최, 신안 멸종위기종 실태와 보호 의미를 알리는 전시기획을 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 학교 발전기금 기탁

### 목포중앙고에 500만원 전달

강진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가 학교법인 근화학원 목포중앙고등학교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과 모기업인 근화건설주식회사는 생전 김호남 회장이 2013년 설립한 우남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꿈이 꽃피는 장학금'을 목포중앙고에 12년째 지원하고 있다.

목포중앙고는 고(故) 김호남 회장이 2008년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지역 명문특성화고로 거듭

났다. 김유림 총괄 사장은 "남다른 후학양성 및 인재육성에 대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적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는 김호남 회장이 2018년 설립한 클럽으로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과 총 52객실의 리조트로 구성됐다.

한편, 근화건설주식회사는 최근 선대의 문화유산 이어간다는 의미의 '헤리티지호텔'을 목포평화광장 인근에 개관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3월 13일자 14면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설계 부적합 논란' 기사와 관련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로 설계했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의 사실 확인결과, 불특정(플라스틱) 배수판은 인조잔디 시스템하부에 설치되는 현상

포설형 배수자재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배수자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은 인조잔디 시스템에 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